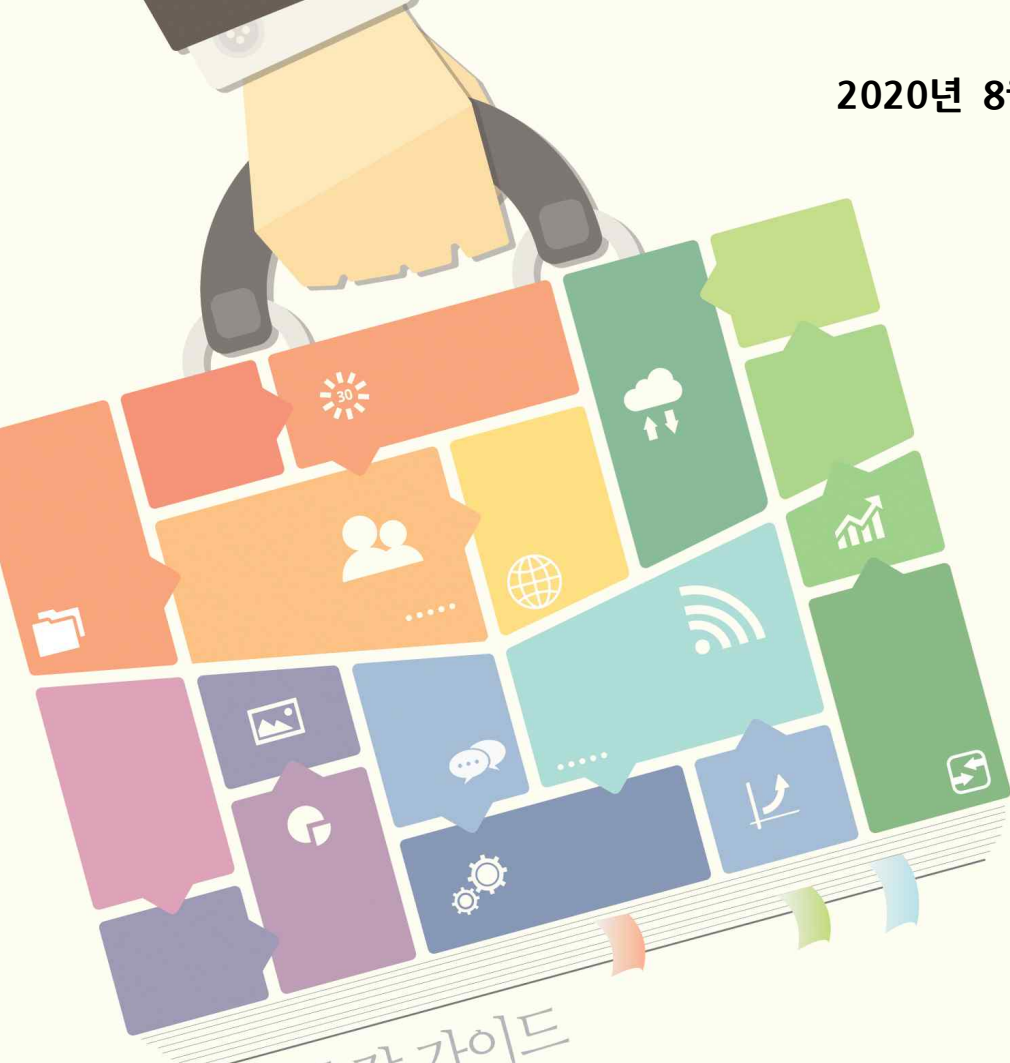


2020년 8월



해외출장 가이드

베트남 하노이 출장자료

【 목 차 】

I. 베트남 및 하노이 개황	01
II. 베트남 경제 및 무역·투자 동향 ...	03
III. 베트남 경제 특징과 정책 동향	12
IV. 베트남 경제 전망	20
V. 체류시 참고사항	24
VI. 주요 연락처	27

Contents



I. 베트남 및 하노이 개황

1. 베트남 개황

- ☐ 면 적 : 331,212km²(한반도의 약 1.5배, '18년)
- ☐ 인 구 : 9,648만 명('19년, 베트남 통계청)
- ☐ GDP : 약 2,619억 달러('19년, 베트남 통계청)
- ☐ 1인당 GDP : 약 2,715달러('19년, 베트남 통계청)
- ☐ 경제성장률 : 7.02%('19년, 베트남 통계청)
- ☐ 물가상승률 : 2.79%('19년, 베트남 통계청)
- ☐ 환 율 : 1달러 당 VND 23,214('20.8.17 베트남 중앙은행 고시 환율 기준)
- ☐ 시 차 : 한국보다 2시간 늦음
- ☐ 민 족 : 킨족(총인구의 약 85.7%), 타이족, 크메르족 등 54개 소수 민족
- ☐ 종 교 : 불교(1,000만명), 카톨릭(586만명), 개신교(9만명) 등('19년)
- ☐ 정치체제 : 사회주의 공화국(공산당 일당)
- ☐ 주요 지도자
 - 당서기장 겸 국가주석 : Nguyen Phu Trong
 - 총 리 : Nguyen Xuan Phuc
 - 국회의장 : Nguyen Thi Kim Ngan



2. 하노이 개황

□ 기본개황

- 면 적 : 3,358.6km²
- 인 구 : 809만명('19년)
 - * 호치민 903만명, 하이퐁 203만명, 켄터 123만명, 다낭 114만 명
- 평균기온 : 연평균 27°C
- 평균습도 : 81%



자료원 : WIKIPEDIA OPEN ENCYCLOPEDIA

□ 지명유래 및 역사

- 중국 지배시기에는 행정중심지로 다이라(Dai La, 大羅)성으로 불렸음
- 1010년 리(Ly, 李)왕조의 창시자인 리타이포(Ly Thai To, 李太祖) 왕이 호아르(Hoa Lu)에서 하노이로 수도를 옮김(당시 이름은 Thang Long, 昇龍)
- 1397년 쩐(Tran, 陳)왕조 말기 왕실의 외척이며 권신이었던 호꾸리(Ho Quy Ly)가 타잉호아(Thanh Hoa)에 새 수도를 건설하면서, 타잉호아를 떠이도(Tay Do, 西都)라 칭하고 탕롱을 동도(Dong Do, 東都)라 칭함
- 1428년 후기 레(Le, 黎) 왕조를 수립한 레타이포(Le Thai To, 黎太祖)가 고향인 타잉호아 람썬(Lam Son)을 람깁(Lam Kinh, 藍京)이라 하고 탕롱을 동깁(Dong Kinh, 東京)이라 개칭
 - 17세기 이래 유럽인들은 동깁을 통킹(Tonkin)으로 표기
- 19C초 응웬(Nguyen, 阮) 왕조는 수도를 중부도시 후에(Hue)로 옮기고, 탕롱이라는 지명을 '하노이(Ha Noi, 河內)'로 개칭(Red River와 To Lich River의 사이)
- 1945년 독립 후 하노이를 다시 수도로 지정
- 1954~1975년 베트남 민주공화국의 수도(북베트남)
- 1976~현재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수도
 - 사이공은 호치민시로 이름 변경

II. 베트남 경제 및 무역·투자 동향

1. 베트남 거시경제동향

구분	단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GDP	억 달러	1,915	2,013	2,232	2,427	2,607
GDP 증가율	%	6.7	6.2	6.81	7.08	7.02
1인당 GDP	달러	2,088	2,172	2,385	2,587	2,715
산업생산증가율	%	9.8	7.5	9.4	10.2	9.1
수출	억 달러	1,620.2	1,765.8	2,140	2,435	2,643
수입	억 달러	1,655.7	1,748.0	2,111	2,367	2,534
무역수지	억 달러	-35.5	17.8	29.0	72.0	111.2
물가상승률	%	0.63	2.67	3.53	1.48	2.79
외채	억 달러	396.4	429.1	463.2	469.7	478.1
공채	억 달러	943.1	1,074.9	1,152.4	1,217.4	1,215.7
외환보유고	억 달러	300	410	505	625	800
평균 환율	VND/\$	21,698	21,935	22,451	22,606	23,155
기준금리	%	6.5	6.5	6.25	6.25	6
FDI	억 달러	228	244	359	355	380
외국인 관광객	천 명	7,944	10,010	12,900	15,498	18,009

자료원 : 베트남 통계청, 베트남 재무부, 베트남 세관총국, 베트남 기획투자부, 베트남 중앙은행, ADB, WB, IMF, Trading Economics

2. 대외 교역

□ 베트남의 대외 교역 동향

- 2020년 1월~6월 베트남의 수출액과 수입액은 각 1,227억 8천 8백만 달러, 1,173억 2천 6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0.2% 증가, 2.9% 감소함.
- 동 기간의 무역 수지는 54억 6천 1백만 달러 흑자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함

<베트남의 대외 교역 동향>

(단위 : USD 백만, 증가율 %)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1분기	2020년 2분기
수출	162,017 (7.9)	176,581 (9.0)	214,019 (21.2)	243,483 (13.2)	264,289 (8.4)	63,234 (7.5)	122,788 (0.2)

수입	165,570 (12.0)	174,804 (5.6)	211,104 (20.8)	236,688 (11.1)	253,071 (6.8)	59,494 (3.7)	117,326 (-2.9)
무역수지	-3,554	1,777	2,916	6,795	11,118	3,740	5,461

자료원 : 베트남 세관총국(General Department of Customs)

<2020년 상반기 베트남의 주요 교역국 현황>

(단위 : USD 10억, %)

순위	국가명	수출액(비중)	순위	국가명	수입액(비중)
1	미국	31.5(25.7)	1	중국	34.9(29.8)
2	중국	19.6(16.0)	2	한국	20.8(17.7)
3	일본	9.3(7.6)	3	일본	9.4(8.0)
4	한국	9.1(7.4)	4	대만	7.5(6.4)
5	홍콩	4.1(3.3)	5	미국	7.0(6.0)
6	독일	3.2(2.7)	6	태국	5.0(4.3)
7	네덜란드	3.2(2.6)	7	말레이시아	3.0(2.6)
8	태국	2.2(1.8)	8	인도네시아	2.5(2.1)
9	영국	2.2(1.8)	9	호주	2.3(2.0)
10	대만	2.2(1.8)	10	인도	2.0(1.7)
기 타		35.8(29.2)	기 타		22.8(19.4)
합 계		122.7(100.0)	합 계		117.3(100.0)

자료원 : 베트남 세관총국(General Department of Customs)

<2020년 상반기 베트남의 주요 수출 품목>

(단위 : USD 백만, %)

순위	품목	6월 기준(누적)	전년대비 증감률	비중
1	전화기 및 그 부분품	21,955	-6.5	17.9
2	컴퓨터, 전자제품 및 부분품	19,471	25.4	15.9
3	섬유·의류제품	13,181	-12.7	10.7
4	기계, 장비, 도구 및 기타 부속품	10,415	26.5	8.5
5	신발류	8,130	-6.9	6.6
6	목재 및 목제품	5,036	3.6	4.1
7	수송수단 및 그 부속품	3,758	-11.4	3.1
8	수산물	3,603	-7.4	2.9
9	철강재	2,085	-5.6	1.7
10	농산물	1,757	-13.6	1.4
기타		33,393	-	27.2
총		122,788	0.2	100.0

자료원 : 베트남 세관총국(General Department of Customs)

<2020년 상반기 베트남의 주요 수입 품목>

순위	품목	6월 기준(누적)	전년대비 증감률	비중
1	컴퓨터, 전자제품 및 부분품	27,163	13.8	23.2
2	기계, 장비, 도구 및 기타 부속품	16,820	-4.5	14.3
3	전화기 및 그 부분품	5,971	2.7	5.1
4	직물	5,521	-15.9	4.7
5	철강재	4,014	-16.6	3.4
6	플라스틱 원료	3,919	-10.6	3.3
7	플라스틱 제품	3,238	5.8	2.8
8	비금속류	2,786	-11.7	2.4
9	화학제품	2,622	3.6	2.2
10	섬유·의류·신발의 원부자재	2,513	-14.3	2.1
	기타	42,756	-	36.4
	총	117,326	-2.9	100.00

자료원 : 베트남 세관총국(General Department of Customs)

□ 한-베트남 교역 동향

- 양국이 수교를 체결한 1992년 4억 9300만 달러에 불과했던 양국 간 교역 규모는 2010년 100억 달러 규모를 돌파(129억 8300만 달러)한 이래 급속하게 증가하여 2017년 600억 달러(639억 3100만 달러)를 넘어섰으며, 2018년 692억 4,913만 달러 달성
- 2020년 상반기(1월~6월) 베트남 무역수지는 111억 달러 수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 감소했으며, 한-베 교역 규모는 311억 8,700만 달러, 한국의 베트남 수출액과 수입액은 각각 211억 달러, 100억 달러로, 베트남은 한국의 3위 수출국이자, 4위 수입국, 3위 교역 상대국임.

<한국의 베트남 교역 동향>

(단위 : USD 백만, %)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6월
수출 (한-베)	27,771 (24.2)	32,630 (17.5)	47,754 (46.3)	48,622 (1.8)	48,178 (△0.9)	21,154 (△8.4)
수입 (베-한)	9,805 (22.7)	12,495 (27.4)	16,177 (29.5)	19,643 (21.4)	21,071 (7.3)	10,033 (△0.6)
무역수지	17,966	20,135	31,577	28,979	27,106	11,121
교역규모	32,576	45,125	63,931	68,265	69,249	31,187

주 : () 안은 전년 대비 증감률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협회 무역통계

* 한국의 대외교역에서 베트남의 위상 변화

- 수출 : ('14)6위 → ('15)4위 → ('16)4위 → ('17)3위 → ('18)3위→('19)3위→('20.6)3위
- 수입 : ('14)15위 → ('15)10위 → ('16)8위 → ('17)7위 → ('18)7위→('19)5위→('20.6)4위
- 교역 : ('14)8위 → ('15)4위 → ('16)4위 → ('17)4위 → ('18)4위→('19)4위→('20.6)3위
- * '20.6 기준, 베트남 입장에서 한국은 3위 교역대상국(수출 4위, 수입 2위)

□ 품목별 한-베트남 수출입 현황

<2020년 상반기 한국의 베트남 주요 수출품목>

(단위 : USD 백만, %)

순위	품목명	수출금액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비중
1	반도체	5,314	-6.2	25
2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3,301	5.7	16
3	무선통신기기	1,503	12.9	7
4	기구부품	976	-8.6	5
5	합성수지	732	-8.1	3
6	석유제품	526	-30.4	2
7	플라스틱 제품	524	-12.6	2
8	철강판	499	-12.4	2
9	광학기기	448	-14.7	2
10	기타기계류	379	-11.4	2
	기타	6,952	-	33
	합계	21,154	-8.4(평균)	100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MTI 3단위 기준)

<2020년 상반기 한국의 베트남 주요 수입품목>

(단위 : USD 백만, %)

순위	품목명	수입금액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비중
1	무선통신기기	2,677	2.1	27
2	의류	1,348	-10.6	13
3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568	11.3	6
4	신변착화	563	-23.2	6
5	컴퓨터	493	50.3	5
6	목재류	333	-6.9	3
7	산업용 전기기기	260	56.9	3
8	기타석유제품	257	12.4	3
9	영상기기	216	17.0	2
10	가정용 회전기기	207	-4.1	2
	기타	3,111	-	31
	합계	10,033	0.6(평균)	100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MTI 3단위 기준)

3. 베트남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동향

□ 베트남 FDI 총괄

- '20년 6월(6월 20일)까지 누계 기준, 대 베트남 외국인투자는 총 32,212건, 3,779억 달러
- '20년 1~2분기 간 대 베트남 외국인 총투자액은 전년 동기대비 15.1% 감소, 직접투자액은 17.5% 증가
 - 1월 21일 General Electric 싱가포르 법인은 'Bac Lieu LNG 화력발전소(3,200MW) 건설에 약 40억 달러 투자승인, 이로 인한 직접투자액 큰 폭 증가

< 연도별 외국인 총투자액 (직접투자 + 출자, 주식매입) >

(단위: USD 백만, 건)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분기
투자 금액	26,890.5	37,100.6	35,465.5	38,951.7	15,671.06
증감율 (전년대비)	-	37.9%	4.4%	9.8%	-15.1%
투자 건수	9,832	9,000	10,711	16,227	6,069
증감율 (전년대비)	-	-8.4%	19.0%	51.4%	-4.7%

자료원 : 베트남 기획투자부(MPI), '20년 2분기 증감율은 전년 동기대비

< 연도별 외국인 직접투자액 (신규 + 증자) >

(단위: USD 백만, 건)

구 분	2016	2017	2018	2019년	2020년 2분기	누계 합계
투자 금액	22,379.7	30,783.1	25,572.8	23,384.5	12,160.9	377,909.8
증감율 (전년대비)	-7.1%	37.5%	16.9%	-8.5%	17.5%	-
투자 건수	3,862	3,975	4,215	5,454	1,944	32,212
증감율 (전년대비)	27.1%	2.9%	6.0%	29.3%	-17.3%	-

자료원 : 베트남 기획투자부(MPI), '20년 2월 증감율은 전년 동기대비

□ 국가별 투자 동향

- '20년 6월까지 누계 기준, 국가별 외국인 투자는 한국이 투자건수 8,826건, 투자금액 683.1억 달러로 최대 투자국. 금액기준, 전체 외국인 투자의 약 18.5% 차지
 - 이어 일본(4,548건/600.9억 달러), 싱가포르(2,532건/547.4억 달러), 대만(2,750건/332.3억 달러) 순
- '20년 1~2분기 국가별 투자는 싱가포르가 총투자 및 직접투자액 모두 1위이며, 중국의 경우 최근 공장이전 수요가 증가하며 직접투자에서 3위 차지. 일본의 경우 출자 및 주식매입 투자에서 1위를 차지하며, 동기간 전체 투자 4위에 위치
 - 미·중 무역분쟁 및 최근 COVID-19 사태로 인한 요인으로 인해 싱가포르(1위), 중국(2위), 대만(3위), 홍콩(4위) 등 중국경제권 내 국가들의 대 베트남 직접 투자 확대

< 대 베트남 국가별 투자 누적액 상위 8개국의 최근 5년 투자동향 >

(단위: USD 백만)

순위	국가명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분기	'88~'20.6월 누계
1	한국	총투자	7,965.2 (1위)	8,719.9 (2위)	7,212.0 (2위)	8,344.4 (1위)	1,429.5 (4위)	68,315.9
		직접투자	6,895.8 (1위)	7,801.8 (2위)	5,928.5 (2위)	5,647.3 (1위)	881.1 (5위)	
2	일본	총투자	3,035.9 (2위)	9,204.6 (1위)	8,598.9 (1위)	4,169.2	1,464.1 (3위)	60,097.7
		직접투자	2,509.8 (2위)	8,718.6 (1위)	7,989.3 (1위)	2,922.5	636.5 (6위)	
3	싱가포르	총투자	2,414.7 (3위)	5,894.8 (3위)	5,071.0 (3위)	4,421.2 (3위)	5,438.6 (1위)	54,742.3
		직접투자	2,123.3 (3위)	4,939.0 (3위)	3,269.8 (3위)	1,820.3	4,825.5 (1위)	
4	대만	총투자	2,194.4	1,532.7	1,074.1	1,883.1	1,280.1 (5위)	33,238.2
		직접투자	1,351.6	1,162.6	679.5	1,167.7	1,036.2 (3위)	
5	홍콩	총투자	1,680.9	1,566.6	3,231.6	8,178.3 (2위)	966.1	24,731.1
		직접투자	1,626.1	1,412.9	1,936.9	3,715.2 (2위)	881.6 (4위)	
6	버진아일랜드	총투자	874.5	1,650.7	1,866.2	1,406.2	365.8	21,913.2
		직접투자	826.3	487.3	534.6	821.7	193.1	
7	중국	총투자	2,136.7	2,137.5	2,464.8	4,115.2	1,577.5 (2위)	20,994.9
		직접투자	1,705.9	1,645.8	1,662.5	3,047.7 (3위)	1,281.1 (2위)	
8	말레이시아	총투자	939.6	297.6	435.5	220.5	120.1	12,751.4
		직접투자	688.3	161.2	282.2	147.5	99.1	

* 자료원 : 베트남 투자청, 순서는 '88년~'20년 6월 누적 투자액순(6.20일 기준, 누적에는 출자 및 주식매입 미포함)

□ 업종별 투자 동향

- '20년 2분기까지 누계 기준, 대 베트남 분야별 외국인투자는 제조, 가공업이 58.6%, 부동산 경영 15.4%, 전력/가스/용수 제조 7.3%, 건설 3.7%, 호텔 요식업 3.2% 순
- '20년 1~2분기 간 분야별 외국인 투자는 'Bac Lieu LNG 화력발전소(3,200MW) 프로젝트 투자로 인해 전력/가스/용수 생산 분야가 전체 투자의 약 25.2% 차지
 - 중국발 코로나 위기 및 미-중 무역전쟁 영향으로 탈 중국이 가속화되어 제조 가공업은 51.1%로 1위이며, 직접투자 비율이 출자 및 주식매입 방식의 투자보다 상대적으로 높음(제조 가공분야 직접투자 비율 55.9%)
 - 기타 분야의 경우, 직접투자보다 출자 및 주식매입 등 간접투자 방식의 투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특징을 보임

□ 베트남 한국투자 총괄

<최근 5년간 한국의 대 베트남 투자>

(단위: USD 백만)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6월
연도별 한국 총투자	투자금액 (US백만)	미집계	7,965.2 (1위)	8,719.9 (2위)	7,212.0 (2위)	8,344.4 (1위)	1,429.5 (5위)
	투자건수	미집계	2,702 (1위)	2,642 (1위)	3,345 (1위)	4,908 (1위)	1,785 (1위)
연도별 한국 직접투자	투자금액 (US백만)	6,727.9 (1위)	6,895.8 (1위)	7,801.8 (2위)	5,928.5 (2위)	5,647.3 (1위)	881.6 (5위)
	투자건수	962 (1위)	1,216 (1위)	1,339 (1위)	1,446 (1위)	1,657 (1위)	522 (1위)
한국투자 누계	투자금액 (US백만)	44,900.6	50,553.5	57,861.7	62,567.0	68,103.3	68,315.9 (1위)
	투자건수	4,944	5,773	6,549	7,459	8,504	8,826 (1위)
총 FDI 누계	투자금액 (US백만)	279,038.8	293,700.4	319,613.1	340,159.4	363,309.7	377,909.8
	투자건수	19,929	22,594	24,803	27,353	30,943	32,212

* 1) 총 투자는 기존 직접투자 + 주식 및 지분투자(M&A) 포함, 2016년부터 발표.

2) 총 누계자료에는 직접투자 합계로 책정. 3) 순위는 외국인 투자국 중 순위

**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 반올림

*** 자료원 : 베트남 기획투자부(MPI), '20년 6월 증감율은 전년 동기대비(2020.6.20일 기준)

- '20년 6월까지 누계 기준, 한국은 8,826개 프로젝트에, 683.1억 달러 투자. 여전히 1위 투자국에 위치하고 있으나 최근 신규 및 증자 투자가 큰 폭으로 하락 중
 - 전년 동기대비 총 투자액 47.6% 감소, 직접투자액 38.3% 감소
- 2019년 12월 시작된 중국발 COVID-19 사태로 인한 제조 환경 악화 및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등 문제는 한국 기업의 해외투자 활동에 직접적 영향
 - 바이러스의 글로벌 확산으로 인해 전체 외국인의 대 베트남 투자가 큰 폭으로 감소한 상황 그러나 주요국 대비 한국의 베트남 투자 감소폭이 더욱 두드러져

□ 분야별 한국투자

<한국기업의 업종별 직접투자 현황>

(단위 : 건, USD 백만)

구분		'88년~'20년 2분기 누적			2020년 1~6월 (신규 및 증액 직접투자)		
#	산업	투자건수	투자금액	점유율 (%)	투자건수	투자금액	점유율 (%)
1	제조, 가공	4,440	50,831.6	74.4%	207	670.2	76.1%
2	부동산경영	187	8,344.7	12.2%	9	12.6	1.4%
3	건설	912	2,805.8	4.1%	28	9.4	1.1%
4	도소매, 유통서비스	1,257	1,461.5	2.1%	142	96.7	11.0%
5	물류운수	179	1,165.5	1.7%	11	37.2	4.2%
6	호텔 요식업	169	885.0	1.3%	23	12.4	1.4%
7	전문과학기술업	606	625.8	0.9%	36	23.9	2.7%
8	정보통신업	385	500.9	0.7%	32	4.1	0.5%
9	전력/가스/용수	25	459.7	0.7%	-	-	-
10	의학 및 사회봉사	40	234.4	0.3%	3	1.1	0.1%
11	용수및폐기물처리	11	200.7	0.3%	-	-	-
12	행정, 지원 서비스	139	183.7	0.3%	14	2.8	0.3%
13	예술 및 엔터테인먼트	25	180.2	0.3%	-	-	-
14	농, 임, 수산	41	118.9	0.2%	1	0.6	0.1%
15	채광산업	5	115.3	0.2%	-	-	-
16	교육, 양성	124	107.0	0.2%	12	9.4	1.1%
17	재정, 금융업	14	57.0	0.1%	2	0.3	0.0%
18	기타 서비스업	64	36.9	0.1%	2	0.1	0.0%
19	가정용 렌탈서비스	3	1.2	0.0%	-	-	-
합계		8,826	68,315.9	100.0%	522	881.1	100%

* 자료원 : 베트남 투자청, 순서는 '88년~'20년 6월 누적 투자액순(6.20일 기준, 누적에는 출자 및 주식매입 미포함)

- '20년 2분기까지 누계 기준, 한국의 대 베트남 분야별 투자는 제조 가공분야 가장 많은 74.4%를 차지, 다음으로 부동산 경영(12.2%), 건설(4.1%), 도소매 수리업(2.1%), 물류/창고업(1.7%) 순

- '20년 1~2분기 간 직접투자액 기준으로는 제조 가공 분야에 대한 투자는 전체 중 76.1%를 차지하며 누적 평균과 비슷했으며, 대신 도소매 수리업(11.0%), 물류운수업(4.2%) 분야 등의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

□ 지역별 한국투자

- '20년 2분기 누계 기준, **한국기업의 최대 진출지역은 박닌성**으로, 전체 투자의 **15.5%(106.1억 달러)**를 차지
 - 이어 하이퐁 10.7%(72.9억 달러), 동나이 10.5%(71.8억 달러), 하노이 9.2%(63.0억 달러), 타이응웬 7.9%(54.4억 달러), 호치민 7.7%(52.6억 달러) 순
 - 누계 투자금액 기준 지역별 투자는 북부 57.8%, 남부 36.1%, 중부 및 기타 6.1% 순

□ 주요 한국투자 프로젝트

<2019년 ~ 2020년 6월 한국기업 주요 투자 프로젝트 현황>

(단위 : USD 백만)

연번	기업명	분야	투자금액	지역
1	Global Consultant Netword	경마장	420	Hanoi(북부)
2	Samsung R&D Center	연구소	210	Hanoi(북부)
3	YOUNG POONG ELECTRONIC	전자부품	200	Vinh Phuc(북부)
4	S&D HANOI (선경E&C)	호텔사업	180	Hanoi(북부)
5	Dongwha Enterprise	MDF 합판	163	Thai Nguyen(북부)
6	Chang Shin Dong Nai	신발 봉제	100	Dong Nai(남부)
7	Seojin System	전자부품	100	Bac Giang(북부)
8	Chang Shin Vietnam	신발 봉제	100	Dong Nai(남부)
9	SNS STYLE COMPLEX	부동산 개발	89	Hanoi(북부)
10	Fursys Holdings Inc	인테리어 소품	75	Dong Nai(남부)
11	SEBANG BATTERY VINA	배터리	60	Dong Nai(남부)
12	NOX CORPORATION	플라스틱	60	Dong Nai(남부)
13	HANA MICRON	반도체	60	Bag Giang(북부)
14	DENTIUM	의료(임플란트)	60	Da Nang(중부)

* 자료원 : 베트남 기획투자부(MPI), 신규 투자 중 투자신고액 5천만불 이상 대형 프로젝트

III. 베트남 경제 특징과 정책 동향

1. 베트남 경제 및 시장 특징

□ 동남아시아 경제의 기관차 역할

- 동남아 주요 국가들이 5~6%대의 성장률을 기록한 반면 베트남의 2019년 한 해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대비 7.02% 증가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
-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기존 ASEAN 주요국을 제치고 동남아시아 국가 중 투자하기 좋은 나라 순위 1위를 차지, 전 세계 순위는 2018년 23위에서 2019년 8위로 15계단 상승 ('19.09 U.S News&World Report)
- 거대경제권과 아시아의 FTA 허브로 부상
 - 2019년 1월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발효와 2020년 8월 EU-베트남 자유무역협정 (EVFTA) 발효로 미중 무역전쟁, 코로나19발 글로벌 가치사슬(GVC) 재편에 대비

□ 베트남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FDI 기업군

- FDI 기업이 베트남 수출 성장을 견인
 - '19년도 FDI 기업의 수출액은 1,813억 달러로, 전체 수출액 대비 68% 비중을 차지하여, 베트남 대외교역에 있어서 FDI 기업의 높은 의존도를 방증
 - * 연도별 FDI 기업의 수출액 비중 추이: (2014년) 62.5% → (2015년) 68.2% → (2016년) 70.2% → (2017년) 71.1% → (2018년) 70.5% → (2019년) 68.0%

□ 거대 인구를 보유한 떠오르는 신흥시장

- '20년 4월 기준 베트남은 9,700여 만 명의 세계 15위 인구 국가로, ASEAN 회원국 가운데서는 인도네시아(2억 7천만 명, 세계 4위), 필리핀(약 1억 900만 명, 세계 13위) 다음으로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
 - * 기대수명 상승과 높은 출산율의 영향으로 2023년경 1억 명 돌파, 2050년까지 1억 2천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World Bank)
- 소득증가와 중산층 증대로 우수한 소비시장 보유
 - 주요 소비계층인 20~49세까지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2035년에는 중산층 인구비중이 전체 인구의 5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

- 전체 인구의 약 34%를 차지하는 15~34세의 젊은 층이 베트남 내수시장의 핵심 소비계층으로 부상
 - 청소년기 및 결혼·육아기 연령층 소비자의 주요 소비품목인 IT·생활가전제품, 유아용품 시장이 빠르게 성장 중이며, 대도시 거주 중산층 가구를 겨냥한 프리미엄 제품 시장도 확대되고 있는 양상

* '19년 기준 월 소득 평균 미화 714달러의 베트남의 중산층은 전체 인구의 16.3%에 해당함. 2030년까지 중산층 예상 인구는 약 6천 8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50% 이상이 될 전망 (BCG)

- 베트남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전자 상거래 시장 중 하나로 연간 성장률 35%를 기록, 일본 보다 2.5배 높은 성장률을 보임.
 - Lazada, Shopee, Tiki, Sendo는 베트남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Big4로 꼽히며 은행들과 제휴를 맺고 자체 전자결제 시스템을 도입하여 매출 증대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대도시 (하노이, 호치민, 다낭)의 오프라인 쇼핑인구 중 20~30%가 온라인 쇼핑인구로 전환 됨. (Nielson)

* 온라인 배달 서비스 음식주문 플랫폼 (Grab Food, Now, Baemin, Vietnammm)의 배달 음식 주문량은 코로나 19 유행 이전보다 50% 증가

* 식품 및 생필품 구매는 주로 Grab Martt, Vinmart, Co.op, Chopp등의 모바일 플랫폼을 선호

- 가처분소득 증가 및 경기 활성화에 따른 소비 지출 확대, 인터넷 및 스마트폰 보급률 증가를 토대로 전자상거래 시장 역시 지속 성장할 전망

* '19년 기준 베트남의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미화 50억 달러로 전년에 비해 81% 성장, 2025년까지 미화 230억 달러 규모로 성장 전망 (e-Conomy SEA 2019)

□ 1국 3색의 베트남

- 베트남 북부·중부·남부는 물리적 거리, 역사적 배경, 상이한 기후조건 등으로 인해 성장 격차가 상당하며, 소비성향과 투자환경 면에서 차이가 뚜렷함.
- 2019년 기준 하노이 인구는 809만 명, 호치민 인구는 903만 명으로 총 인구 9천 7 백만 명의 약 17.5%가 거주하고 있는 호치민시(남부)와 하노이(북부)를 중심으로 경제가 발달해 있으며, 최근에는 하이테크파크(DHTP)건립과 함께 첨단 산업도시로 도약을 꿈꾸는 다낭(중부)이 새로운 투자처로 급부상
 - 2020년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도시로 베트남의 호치민시와 하노이가 각각 3위와 7위로 선정, 하노이는 전년 8위에 비해 한 계단 상승.

- (호치민시) 베트남 경제도시이자 최대 소비시장

- 의류·섬유, 경공업, 유통, 부동산, 건설 등 다양한 분야 투자 러시, 닌투언성, 빈투언성 등의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와 스마트시티 등의 프로젝트 진행 중
- 호치민시는 상대적으로 높은 거주자 소득수준, 쇼핑·외식·여가 지출에 관대한 성향, 새로운 상품에 대한 호의적 태도 등으로 소비재 진출 시장으로 적합한 것으로 평가
- 베트남 시장의 테스트 베드로 주목을 받으며 상당수의 기업, 스타트업이 호치민 시에 전초기지를 구축함.

- (하노이) 하노이를 중심으로 대기업 및 1,2차 협력사 중심 투자

- 소비시장 측면에서 하노이는 거주자들의 소비지출에 인색한 태도, 기존 브랜드에 대한 높은 충성도로 인해 신규 소비재 품목 진출지로는 부적합한 것으로 평가. 단, 과시적 소비성향이 강해 초고가 브랜드 입점이 활발한 편
- 최근에는 인프라 개선과 행정개혁에 주력하고 있으며 2019년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 1위 도시로서 동남권 유망 투자지로 재조명받고 있음.
- 삼성, LG등 국내 전기·전자 대기업의 북부지역 투자 진출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 협력업체 상당수가 하이폰시, 박닌성, 타이응우옌성 등에 진출

- (다낭) 베트남 대표 관광도시에서 동남권 하이테크 경제도시로 도약 추진

- 2013년 하이테크파크 조성 후 외국인직접투자(FDI) 9건을 포함 총 18개 프로젝트에서 미화 5억 6400만 달러 유치
 - * 미국의 유니버설알로이(Universal Alloy, UAC)는 보잉, 에어버스 등의 부품 공급 업체로서 다낭 Sunshine Aerospace 공장에서 4천여 종의 항공부품을 생산하여 북미, 유럽, 아시아로 수출함.
- 외국자본의 고급 리조트 건설과 국제 직항노선 신규 취항이 잇따르면서 베트남은 물론 동남아 지역의 대표적 휴양지로 꼽히고 있음.
- 최근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다낭의 관광 및 여행 서비스업에 큰 타격을 받았으며 다낭시 관광국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객 중 약 50%를 차지하는 한국인 관광객이 급감함에 따라 관광수입 역시 전년 대비 20.7% 감소할 것으로 전망

2. 베트남의 정책 동향

□ 경제개발·투자환경 향상을 위한 정책 개선

- 베트남은 2019년 9월 개최된 베트남 개혁과 발전 포럼에서 2021~2030년 사회경제개발전략 초안을 발표
 - 현대적이고 통합된 시장기반 경제로의 전환, 새로운 유형의 비즈니스, 디지털 경제에 대한 법적 프레임워크 구축, 시장 원칙에 부합하는 공공 서비스의 제공, 환경보호 실천이 주요 정책 방향임.

○ 4차 산업혁명시대 동남아시아 IT강국 목표

- 2019년부터 「Make in Vietnam」 4차 산업혁명 증진 캠페인을 통해 10만개의 첨단기술을 가진 로컬기업을 육성하고 2030년까지 IT(정보기술)분야 세계 30위 진입을 목표로함.
- 2030년까지 디지털 경제의 GDP 점유율 30%로 확대, 해외 투자유치를 위한 정책 개혁과 규제 샌드박스를 만드는 것이 목표
 - * 과학기술의 발전과 혁신, 기업중심의 발전 지향, 신규 정책 파일럿 테스트 허용, 신규 비즈니스 모델의 리스크 감수, 디지털 기술 - 5G, 인공지능, 블록체인, 3D프린터, 사물인터넷(IoT), 네트워크보안- 의 응용확대, 청정 에너지, 환경 기술, 생산성 향상, 경제 효율성 증대, 스타트업 생태계 개발 및 기초과학 연구 투자에 초점

○ 해외투자요건 및 투자유치정책 개선 의결

- 2019년 8월 20일, '2030년까지의 베트남 해외투자 협력에 대한 효율 증대 목적 정책, 체제 마련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 (정정부 의결서 No. 50-NQ/TW)
- 베트남 정부의 투자 유치 효율성을 제고하고 투자유치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법률 및 정책 시스템 연동,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정책 투명화, 스타트업 및 혁신 산업 지원책, 지역별 균형 개발을 위한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 국제 표준 부합 기술 표준 마련 및 미비점 보완, 투자자 책임 및 권리 보호를 위한 정책, 투자관리 및 감독기관 확립 등의 세부 의결서 발표

○ 제조업 육성 정책

- 「2035년 전망, 2025년까지의 베트남 산업발전전략」(2014년 6월 9일자 Decision 879/QĐ-TTg)을 통해 제조업을 우선 발전 부문으로 선정
- 농업기계,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 건설, 농림수산업, 수출용 섬유·의류 및 가죽·신발 제조업 등을 주력산업으로 채택하고, 이들 산업의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 부품·소재산업의 육성과 외국인 투자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 부품·소재산업 육성 정책

- 베트남의 부품·소재산업 발달 미비는 현지 제조 산업 고도화 및 글로벌 기업의 현지 투자 진출을 저해하는 요인이자, 베트남 무역적자의 주요인
- 중간재 자급률 제고를 위한 기업 간 자구노력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베트남 정부도 부품·소재산업 육성을 위한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동 부문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한 각종 지원 정책을 발표함.

□ 글로벌 경제로의 통합노력 가속화

- '86년 제6차 베트남 공산당 전당대회에서 대외개방을 표방한 '도이머이(Đổi Mới, 쇄신)'라는 정책을 도입한 이후, 베트남은 서구 국가들과 통상 관계를 확대하고 실리적이고 적극적인 대외개방정책을 추진 중
- 자주적이고 실리적인 외교·통상정책을 펼치고 있는 베트남 정부는 FTA 및 경제공동체 조성에 적극 참여 중
- 특히, 미국을 제외한 TPP 회원국들의 CPTPP 발효, '20년 8월 1일 발효된 EVFTA, 협상 진행 중인 RCEP 등의 영향으로 베트남은 유리한 통상환경 속에서 외국인 투자 및 교역을 크게 확대할 것으로 전망

[베트남의 FTA 추진 현황]

구분	발효 중	발효 예정 (타결·서명)	협상 중	검토 중
ASEAN 차원	AIFTA(인도, '10.1. 발효), AANZFTA(호주/뉴질랜드, '10.1. 발효) AKFTA(한국, '07.6. 발효) AJCEP(일본, '8.12. 발효), ACFTA(중국, '05.7. 발효) A-KFTA(홍콩, '19.6. 발효)	-	RCEP,	-
베트남 단독	AEC(아세안경제공동체, '15.12. 출범), VJEPA(일본, '09.10. 발효), VCFTA(칠레, '14.1. 발효) VKFTA(한국, '15.12. 발효), VA-EAEU FTA(유라시아경제연합 '16.10. 발효) CPTPP('19.1. 발효), EVFTA('20.8. 발효)	-	EFTA (스위스, 노르웨이, 아일랜드, 리히텐슈타인), VIFTA (이스라엘)	FTAAP

자료원 : VCCI(베트남 상공회의소) WTO센터 및 KOTRA 하노이무역관 종합

○ CPTPP 및 ASEAN-홍콩 FTA 정식 발효(2019.06)

- 2019년 1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인 '포괄적·진보적 환태평양동반자협

정'(CPTPP,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이 정식 발효됨. 베트남은 CPTPP를 통해 회원국, 특히 기존 FTA 미체결국가였던 멕시코, 캐나다, 페루로의 수출 확대를 기대

○ EU-베트남 FTA(EVFTA)발효(2020.08.01)

- 베트남과 EU 양자간의 FTA 협상이 타결('15년 8월)된 이후, 양측은 '18년 10월 FTA 서명을 완료하고, 2019년 6월 30일 EU-베트남 FTA를 정식 체결함.
- EU의회 및 정상회의는 2020년 2월과 3월 각각 EU베트남FTA(EVFTA) 비준, 베트남 국회는 2020년 6월 8일 EVFTA비준, 2020년 8월부로 EVFTA 발효.
- EU로 수출되는 베트남 물품 70.3%의 관세가 즉시 철폐됨. 7년 후에는 99.7%의 관세가 사라져 특히 의류·식품품등의 EU시장 진출 기회 다대
- * EU-베트남 FTA 협상개시('12.06) → 양국 12차 협상완료('12.06) → EU-베트남 FTA 타결('15.08) → EU-베트남 FTA 체결('15.12) → FTA 및 투자보호협정문 검토완료('18.08) → FTA 및 투자보호협정문 서명완료('19.06) → EU의회('20.02) 및 EU정상회의('20.03) 각 EVFTA비준 → 베트남 국회 EVFTA비준('20.06) → EVFTA발효('20.08)

□ 기업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법제 개정 및 정비

- 자본력이 부족한 베트남에서 FDI 자본은 베트남의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주요 동력
 - 베트남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보다 유리한 사업 환경을 조성하고자 체제 정비 및 내부 구조조정, 관련법 개정을 지속 추진 중
- 2014년 베트남 정부는 외국인투자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투자법, 기업법, 주택법 개정안을 발표하였으며, 해당 개정법들은 2015년 7월 1일부로 발효됨.
 - (투자법) '20년 6월 17일 베트남 국회 9차 회기에서 투자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며 이는 2014년 제정된 베트남 투자법 No.67/2014/QH13을 대체하여 2021년 1월 1일부로 효력 발생

□ 수정 투자법 주요 개정 내용

- ① 채권 추심 서비스 투자금지 분야로 지정
- ② 다수 사업 투자분야 조건부 사업 목록에서 제외 투자 자율성 증대
- ③ 조건부 사업 투자분야 추가
- ④ 특별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인센티브 및 지원 규정 신설
- ⑤ 프로젝트 실행 보증금 제도 실시
- ⑥ 투자 인센티브 수혜 대상에 대한 규정 수정
- ⑦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베트남 시장접근 조건, 분야 공개 규정화

- (기업법) 법인설립 시 국내투자자와 외국인투자자에게 동일한 방식의 ERC

신청 규정, 법인설립인증서 발급 시일을 3일 단축, 외국인 지분 51% 이상 투자 시 외국인투자기업(FDI)법 적용, 법인 이사회 의사결정 정족수 기준 일부 완화 등이 골자

- (주택법) 비자 승인을 받은 모든 외국인의 부동산 구매를 허용하는 등 외국인의 베트남 부동산 취득요건을 완화
-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한 우호적 투자환경 조성
 - 2020년까지 사업환경 개선과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각종 방안의 지속적 이행을 결의(Resolution 19-2017/ND-CP)
 - 특히, 각종 행정절차에 드는 시간을 ASEAN 4개국(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평균 수준으로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민간기업 중심의 성장 정책 추진

- 국영기업 혁신, 민간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제 발전 도모
 - 국영기업의 부분 민영화-주식화로 전략적 투자유치 도모 및 경제적 효율성, 관리 투명도를 추구
- 국영기업 내 국가 지분 매각 추진
 - 베트남 정부는 지속 확대되는 국영기업의 높은 부채비율을 해소하고,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기업 육성 정책을 실시 중
 - * 베트남 정부의 지속적인 민영화 정책으로, '17년도 베트남의 500대 기업 중 민간기업의 비중은 50% 까지 확대, 10년 전인 '07년도 민간기업 비중은 20% 내외 수준, 정부는 '20년까지 105개 이상의 공기업 민영화를 목표로 하나 실제 민영화 비율은 낮은 편임.
 - 국영기업의 주식 매각을 가속화하기 위해 정부는 '17년 8월, 결정문 Decision 1232/QD-TTg를 발표하고 정부 투자금 회수 리스트를 공개, 단계적으로 지분 매각 진행 중
 - * 연도별 투자금 회수 대상 기업 : ('17년) 135개 → ('18년) 181개 → ('19년) 62개 → ('20년) 28개
- 중소기업지원법 도입
 - 베트남 정부는 민간기업, 특히 전체 기업의 약 97%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 육성을 중요 국정과제로 삼고 관련 정책을 다양하게 수립, 추진 중
 - 베트남 사상 최초로 발의된 중소기업지원법이 2017년 6월 국회를 통과,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 * 은행 대출 용이화, 법인세 감액(최대 3% 감액), 중소기업 대상 전국구 지원 프로그램 구축, 창업 기업의 사업 아이디어 상용화 지원 등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제도 마련이 주요 내용

-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자 인센티브 세부 규정 마련
 - 2020년 3월 30일 투자법에 관한 시행령 (No. 118/2015/NDCP)상의 인센티브대상을 보완하는 시행령 (No.37/2020/ND-CP)을 공포 하였으며 해당 내용에는 인센티브 대상 투자 활동이 추가됨. ('20.5.15일 발효)
 - 주요 내용으로는 중소기업 제품 유통 투자, 중소기업 인큐베이션 관련 투자, 기술설비 투자, 스타트업 공간 제공 및 홍보 등의 지원 사업 투자 등임.
- 2019년 베트남 정부는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법인세 감면 조항을 신설
 - Decree No.13/2019/ND-CP에 따르면 베트남 내 과학·기술 분야 기업은 특정 조건하에 법인 설립 후 4년간 법인세가 면제되며 이후 9년간 50% 감면 받을 수 있음.
 - 2019년 베트남 스타트업에 유치된 투자금은 미화 약 7억 4100만 달러에 달함. 싱가포르(6억 9300만 달러), 태국(1억 3500만 달러)에 비해 높은 수준의 투자를 받고 있으며, 베트남은 2019년 스타트업 생태계 순위100위에서 전년대비 13계단 상승한 59위를 기록
 - '20년 8월 현재 VCCI(베트남 상공회의소)가 추산한 베트남 내 스타트업 수는 약 3,000여개로, 국민 1인당 스타트업 창업 수에서 인도네시아, 중국, 인도를 앞지르고 동남아시아 3위를 기록함.
- PPP(민관합작)법 통과에 따른 인프라 구축에 대한 투자여건 개선 기대
 - 민관합작프로젝트(PPP)법은 2020년 6월 18일 국회 통과 되었으며, 2021년 1월 1일 발효 예정(64/2020/QH14)
 - 기존 시행령(63/2018/ND-CP)대비 기반시설 투자 가능 영역 추가, 최소 자기자본 상향조정, 투자 인센티브 및 리스크 분담, 외화 태환을 허용하는 등의 법령 신설
 - 경제성장과 함께 고속도로, 철도, 공항 등 인프라 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나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원이 부족한 베트남 정부는 PPP 프로젝트를 활성화해 민간자금의 투자를 유도하고 민간부문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활용코자 함.
- * PPP법 제정 과정 : ('07년) Decree 78/2007/ND-CP → ('09년) Decree 108/2009/ND-CP → ('15년) Decree 15/2015/ND-CP: PPP → ('18년) Decree 63/2018/ND-CP:PPP → ('20년) Law No.64/2020/QH14 : PPP 법안 통과 → ('21년 1월 1일) PPP법 발효 예정

IV. 베트남 경제전망

□ 코로나19 여파에도 불구하고, 플러스 성장한 동남아시아 국가

- 베트남 정부, 2020년 경제성장 목표 6.8%에서 5월 4.5%로 하향조정
 - 베트남은 지난 2019년 11월 11일, 2020년 경제 사회 개발계획 결의안(Resolution No. 85/2019/QH14)을 통해 '20년 경제 성장 목표를 6.8%로 확정함.
 - 코로나19의 여파로 성장 둔화가 예측되자 기획재정부는 당초 성장 목표를 4.5%로 하향 조정

2020년 베트남의 경제 개발 관련 목표

구분	2020년 연초 베트남 정부 목표
GDP 증가율	6.8%
수출 증가율	7%
수출액 대비 무역 적자율	3% 미만
상품·서비스 소매 매출	14%
외국인 방문객	2500만 명
도시 실업률	4% 이하
신설 기업 수	14만 개

자료원: Resolution No 85/2019/QH14, KOTRA 하노이무역관 종합

- 베트남은 '20년 상반기 경제성장률 1.81% 기록('20년 1/4분기 3.68%, 2/4분기 0.36%)
 - 코로나19의 유행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가운데 베트남은 '20년 상반기 1.81%의 플러스 성장을 기록함.
 - '20년 상반기 경제성장을 이끈 주요 산업은 제조가공업 (4.96% ↑), 도소매업 (4.3% ↑), 금융은행보험업(6.79% ↑) 등임.
 - 주요 경제 기관들은 베트남은 하반기에도 플러스 성장을 할 것이라 예상되나, 7월 이후 코로나19의 2차 유행으로 관광 및 서비스업이 심하게 위축됨에 따라 베트남 정부의 수정 경제 성장률 목표치인 4.5%에는 도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함.

국제 금융 기관의 베트남 경제 전망

기관명	2020년 경제성장률 전망치(업데이트 시기)
IMF(국제통화기금)	2.7% (World Economic Outlook, October, 2020년 4월)
WB(세계은행)	4.9% (World bank Economic outlook, 2020년 4월)
ADB(아시아개발은행)	4.8% (Asian Development Outlook 2018, 2020년 4월)

자료원: IMF, WB, ADB

○ (물가 및 소비) 2020년 물가 상승률은 4% 미만대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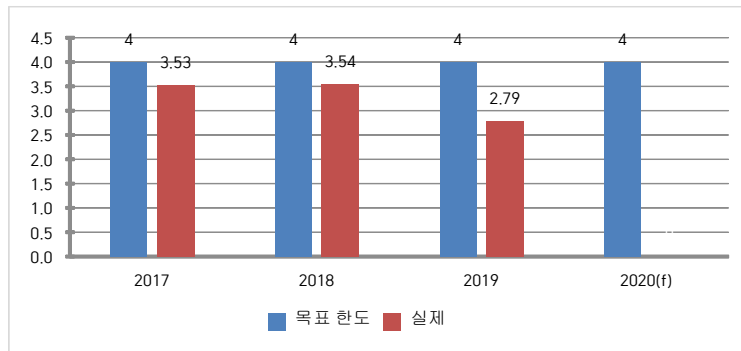
- 2019년도 경제성장률은 7.02%로 높은 성장세를 시현하였으며,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대비 2.79% 상승한 것으로 발표되어 당초 베트남 정부의 목표인 4% 이하 수준을 달성함.

* 베트남의 연평균 CPI 상승률 추이(%): ('13년) 6.60% → ('14년) 4.09% → ('15년) 0.63% → ('16년) 2.66% → ('17년) 3.53% → ('18년) 3.54% → ('19년) 2.79% → ('20년) 4.00%(목표)

- 베트남 정부는 2020년도 물가 상승률 목표를 4% 이하로 설정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정 적자 감소, 주식 시장 안정 등 거시경제 안정화 여부가 주요 변수로 꼽힘.

최근 베트남의 물가 상승률(CPI) 추이

(단위: %)



* 주: 2020년도는 베트남 정부의 목표치(4%미만)

자료: 베트남 통계청

□ 대내외적 기회와 위협 요인 상존

○ 미-중 무역전쟁 장기화로 인한 베트남 영향

- '19년 베트남의 대미 무역 흑자액은 469억 8천 달러로, 전년 대비 34.7% 상승하는 등 미-중 무역전쟁의 반사이익 수혜를 입는 것으로 관측
- * 베트남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 동향 : 2014년 223억달러, 2015년 257억달러, 2016년 297억달러, 2017년 323억달러, 2018년 348억달러, 2019년 469억 달러(자료원: 베트남 세관총국)

- 베트남이 미-중 무역전쟁의 대체 수출국으로 부상하면서 중국기업들의 베트남 진출 확대 및 우회수출이 증가하여 미국으로부터의 압력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대해 베트남 총리는 정부 당국자들에게 미국의 관련정책 변화를 모니터링 하도록 지시함.

- * 미 재무부는 '19년 5월 환율보고서를 통해 베트남을 환율조작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으며, 미 상무부는 베트남을 통해 수출되는 한국과 대만산 철강에 456%의 징벌적 관세를 부과
- * 미 무역대표부(USTR)는 2019년 7월 베트남이 미국과의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베트남을 두고 불공정 무역장벽의 주축국이라 칭함.

○ 베트남-EU FTA(EVFTA) 발효로 인한 유럽권 수출확대 기회

- '20년 6월 30일 베트남-EU 양국은 FTA 및 투자보호협정에 정식 서명 하였으며 '20년 8월 1일 EU-베트남 자유무역협정(EVFTA)이 발효됨.
- 베트남은 싱가포르에 이어, EU와 FTA를 맺은 두 번째 아세안 국가가 됨.

* '12년 6월부터 베트남-EU는 FTA협상을 개시했으며, '15년 8월, FTA 협상 타결을 선언, FTA 및 투자보호협정문 검토를 거쳐 '19년 6월 양측의 최종 서명이 완료 후 20년 8월 1일 자료 발효

- EVFTA는 베트남이 체결한 FTA 중 관세 철폐율이 가장 높은 협정으로, 100%에 가까운 관세 철폐율을 보여, 5억 인구의 EU시장을 바탕으로 베트남의 수출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

- 진출 기업들은 GSP특혜세율과 EVFTA세율 및 원산지증명서 선택 발행, 정확한 원산지 판정에 입각한 원산지 증명서 발행 등의 관리가 필요

* FTA 발효 이후 대 EU 수출액은 '19년도 20%, '25년도에는 42.7% 증가 할 것으로 전망 (베트남 기획투자부)

○ 미중 무역 갈등에서 시작하여 코로나19로 심화된 글로벌밸류체인(GVC)의 변화는 탈 중국화 가속 및 베트남 투자 확대로 이어질 전망

- 애플, HP, Dell 등 주요 글로벌 기업들의 생산기지 거점의 베트남 분산 이동이 가속화 되고 있으며, 일본 정부는 15개 이상의 일본 기업의 중국→베

트남 공장 이전 지원 계획을 밝힘.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체결을 위한 전향적 노력
 - 2020년 6월 23일 한국과 베트남을 포함한 15개국 통상 장관들은 화상 회의를 통해 연내 RCEP 서명 의지를 재확인하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범국가적 협력 필요성이 주요 안건중 하나로 논의됨.
 - 베트남은 GVC 편입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무역협정 체결에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RCEP 체결은 베트남 기업들의 무역원활화 및 역내산 인정 확률 제고 등 베트남 수출 성장에 플러스 요인이 될 전망이다.

V. 체류 시 참고사항

1. 날씨

- 복장 : 여름용 정장 및 평상복
- 하노이는 봄, 여름, 가을이 있으며 연중 고습한 도시임. 여름은 고온다습하나 봄, 가을은 일교차가 심하며 일몰 후에는 서늘하므로 온도차를 고려하여 얇은 긴소매 겉옷 등을 준비하는 것이 좋음.

2. 입국 시 유의사항('20.8.18일 기준)

- '10. 9월부터 입국신고 간소화로 출입국신고서 및 세관신고서 작성 불요
- 한편 여권 훼손, 분실 시 출입국이 불가하므로 보관에 유의
- '20년 7월 1일 출입국법 개정(Law No.51/2019/QH14)
 - 출국 후 30일 이내 재입국 비자면제 불가 규정 삭제(30일 이내 무비자 재입국 가능)
 - 관광비자(DL) 기존 최대 3개월에서 개정 이후 최대 30일 발급만 가능
 - * 관광 비자를 90일 마다 연장, 악용하는 사례가 보고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함.
 - 노동허가와 비자 혹은 거주증 없이 근로하는 경우 최대 미화 약 1천 달러의 벌금 및 강제출국 조치를 당할 수 있음, 향후 베트남 입국에 불이익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
- 코로나19 확산 금지 조치로 인해 '20년 8월 기준 비자 취득 여부와 상관없이 외교, 공무수행자 및 베트남 정부의 특별 승인을 받은 전문 인력, 사업관리자, 기술자를 제외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 중임. 특히 베트남에 입국한 상태가 아니라면 신규 노동허가나 비자 발급에 변수가 있음을 주의해야 함. (입국 규제 및 특별 입국에 관한 규정은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 전문가 특별 입국은 대한상공회의소(하노이/호치민), 베트남한인회(하노이/호치민/다낭)에 신청 후 전문가 특별 입국목적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승인서가 있어야만 가능하며 상기 상공회의소와 한인회 공식 홈페이지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사설업체를 통한 특별 입국은 불가하므로 주의를 요망)**
 - * 해외를 통한 신규 입국자는 입국 목적에 예외 없이 14일간 의무로 시설 격리를 수행해야 함.



3. 환율 및 통화

- 통화 : 베트남 동(VND)
- 환율
 - USD 1 = VND 23,214 ('20.8.17. 베트남 중앙은행 현금매도 환율 기준)
 - KRW 1 = VND 19.53 ('20.8.18. KEB하나은행 현금매도 환율 기준)

4. 대중교통

- 대중교통 : 버스노선 및 배차시간 불명확하므로 택시이용 편리
- 요 금
 - 기본요금은 택시회사에 따라 VND 5,000~12,000까지 상이, 기본요금 이후 킬로미터당 VND 13,000이 부과됨.
 - * 하노이 노이바이 공항에서 상업중심지구(CBD)까지의 평균 택시비는 약 VND 200,000~300,000 정도 (한화 약 1만~1만 5천원)이며, 가까운 시내 주행 시 VND 60,000 (약 3천원) 정도

5. Tip 제도

- 베트남에서는 정상요금에 봉사료가 포함, 팁 지불 불요

6. 시차 및 근무시간

- 시차 : 한국보다 2시간 느림 (한국 9시는 베트남 7시)
- 근무시간 : 관공서와 은행은 주 5일 근무제(월~금)를 실시 (07:30-16:30)
 - * 베트남 신한은행과 Techcombank를 제외한 나머지 은행들은 점심시간에 문을 닫는 경우가 있음.

7. 전압 : 220V / 50Hz (3상 콘센트, 호텔은 한국 2상 콘센트 사용가능)

8. 전화 거는 방법

- 베트남에서 외국전화시 00 먼저 누르고 국가번호 및 전화번호 누름

9. 유의사항

- 소매치기/강도 및 시클로(삼륜 자전거) 주의
 - 최근 외국인대상 소매치기/강도 등 범죄 증가, 늦은 시간 혼자 배회 자제
 - 최근 시클로 및 세움(오토바이택시)의 경우, 바가지 요금 및 범죄 행각 증가
- 보행 시 주의요망
 - 도로에 신호등, 육교 등이 거의 없어 도로 횡단 시 매우 위험
 - 도로, 호텔 근처에서 호객을 하는 경우는 장물일 확률이 높으므로 구매 지양
 - 현지인과 사소한 문제로 언쟁할 경우, 집단구타, 흉기위협이 있을 수 있음
 - 지갑, 여권, 휴대폰, 테블릿 PC 등의 도난 주의
- 음료수 등 음식물 주의
 - 길거리 음식 및 해산물은 간염, 이질 등 위험이 높음. 가능한 끓인 물, 익힌 음식을 드시는 것이 바람직
- 택시 이용 시 주의요망
 - 가능한 호텔택시를 이용하시기 바람에 미터기에 나온 금액보다 더 나왔을 경우 가능한 적은 금액은 포기하는 것이 신변에 안전함
 - 택시기사 중 일부는 분쟁발생시 흉기로 위협을 가하는 경우가 있음
 - 택시 이용 시 가급적 Vinasun, MaiLinh, Grab 등 유명 회사 택시 탑승을 권장
- 베트남 유흥업소 출입은 매우 위험
 - 외국인을 대상으로 유흥업소 호객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최근 베트남 정부는 현지 유흥업소 및 마사지샵 등을 불시 집중단속하여 성매매 사범 등을 구금 및 강제추방하고 있음 (베트남은 매춘 금지 국가)

VI. 주요 연락처

□ KOTRA 하노이무역관(KOTRA Hanoi Korea Business Center)

- 주소 : 20th floor Charmvit Tower
117 Tran Duy Hung St., Cau Giay Dist. Hanoi, Vietnam
- 전화 : (84-24) 3946-0511, 팩스: (84-24) 3946-0519

□ 한국 대사관(하노이)

- 주소 : SQ4 Diplomatic Complex, Do Nhuan St, Xuan Tao, Bac Tu Liem, Hanoi, Vietnam
- 전화 : +84 (0)24 3831-5111, 영사부 +84(0)24 3771-0404

□ 한국 총영사관(호치민)

- 주소 : 107 Nguyen Du St., Dist.1 HCMC, Vietnam
- 전화 : (84-28) 3822-5757 팩스 : (84-28) 3822-5750

□ 항공사

- 대한항공 : (84-24) 3934-7247
- 아시아나항공 : (84-24) 3771-4094
- 베트남항공 : (84-24) 3832-0320

□ 국내은행

- 신한비나은행 : (84-24) 3724-6814
- 우리은행 : (84-24) 3831-5281-9
- 외환은행 : (84-24) 3771-6800

□ 긴급의료시설

- 빈멕 병원 : Vinmec International Hospital
 - 주소 : 458Minh Khai, Hai Ba Trung, Hanoi
 - 전화 : (+84)24 3974 3556 응급실: (+84)24 3974 4333

□ 현지 주요식당

<한 식>

식당명	주소	TEL	비고
고궁	2nd Fl, APT, A201-204, Keangnam, Pham Hung	024)3762-4332	일반한식집
목향	1st Fl, Golden Palace, str. Me Tri	024)3556-9548	일반한식집
비원	9F Landmark 72 Tower, Mê Trì, Từ Liêm	097-625-3300	일반한식집
귀빈	5 Villa Thanh cong St, Ba Dinh	024)3772-1788-9	일반한식집
아리랑	117 Tran Duy Hung St., 그랜드플라자호텔3층	024)3555-1000	일반한식집
고주몽	6F, Lotte Department Store	024) 3333-2641	일반한식집
식객	9F Landmark 72 Tower, Mê Trì, Từ Liêm	024)0764-743-113	일반한식집
맛찬들	Từ Liêm, CT4 ĐN KĐT Mỹ Đình - Đường	024)3204-5112	일반한식점

<중 식>

대우호텔 Silk Road	360 Kim Ma str, Ba Dinh	024)3831-5000	고급중식
연경	8th Fl., Keangnam, Pham Hung, Cau Giay	024)6282-3355	일반중식
자금성	1st Fl., Keangnam, Pham Hung, Cau Giay	024)3772-3803	일반중식

<일 식>

대우호텔 에도(edo)	360 kim Ma str, Ba Dinh	024)3831-5000	고급일식
하나유키(영어 x)	15 Dao Tan str, Ba Dinh	024)3766-8972	일반일식
제주서명	1st Fl., Keangnam, Pham Hung, Cau Giay	024)3377-4888	한국식 일식

<베트남식>

Quan An Ngon	25T2 Hoang Dao Thuy str , Cau Giay	024)3556-0866	베트남 전통식
Pho Bien	14, Trang Thi str, Hoan Kiem	024)3928-5757	베트남 해산물
Nha Hang Hue	36 Dao Tan str, Ba Din	024)3760-6516	베트남 전통식

<야식배달>

놀러와	SO3 LO12A KHU DO THI TRUNG YEN	038-313-8874	후라이드 치킨
-----	--------------------------------	--------------	---------

<참고1> 한-베트남 고위급 외교 일지

○ 한-베 수교 (1992. 12. 22)

○ 정상급을 포함한 고위급 인사 교류 활발

- 1993.5월 Vo Van Kiet 총리 방한
- 1996.11월 김영삼 대통령 방베
- 1998.12월 김대중 대통령 방베
- 2001.8월 Tran Duc Luong 국가주석 방한
- 2002.4월 이한동 총리 방베
- 2003.9월 Phan Van Khai 총리 방한
- 2004.10월, 2006.11월 노무현 대통령 방베
- 2007.11월 Nong Duc Manh 당서기장 방한
- 2008.3월 Nguyen Phu Trong 국회의장 방한
- 2008.4월 임채정 국회의장 방베
- 2008.5월 Truong Tan Sang 당 상임서기 방한
- 2009.10월 이명박 대통령 방베(Korea week)
- 2009.12월 김형오 국회의장 방베
- 2010.10월 이명박 대통령 방베(아세안 정상회담)
- 2011.11월 Truong Tan Sang 국가주석 방한
- 2013.9월 박근혜 대통령 방베
- 2014.10월 Nguyen Phu Trong 당서기장 방한
- 2014.12월 Nguyen Tan Dung 총리 방한,
한-베 FTA 체결 타결
- 2015.5월 한-베 FTA 공식 서명
- 2015.12월 한-베 FTA 공식 발효
- 2017.4월 정세균 국회의장 방베
- 2018.3월 문재인 대통령 방베

<참고2> 하노이 인근 주요 관광지

□ 호치민 묘소(Ho Chi Minh's Mausoleum)



- 호치민 사망(1969년)후 1975.9.2에 완공된 석재 묘소로 건물 내부에 호치민 주석의 시신이 유리관 속에 안치되어 있음. 호치민은 생전에 화장을 원했으나 레닌, 스탈린의 예를 좇아 베트남 국민의 단결을 표상하기 위해 묘소 건물로 지어짐
- 묘소 뒷편(500m)에 호치민 생존 당시 거소 및 사무실용 목조건물, 호치민 박물관이 있으며 전면의 바딘(Ba Dinh) 광장(국가 주요행사 장소)을 중심으로 주석궁(President Palace), 공산당사, 국회, 외무부, 외국 공관 등 핵심기관이 위치
- 매일(월·금요일 제외) 08:00~11:00 일반에 공개되며 매년 9~11월 초순간 연례 보수기간에는 문을 닫음(호치민 시신을 러시아로 옮겨 부패방지 처리함)
- 베트남 국회와 공산당 본부 건물 건너편 넓은 바딘 광장에 갈색의 대리석으로 된 사각형의 웅장한 건물이 "독립"과 "통일"이라는 두가지 과업을 이룩해낸 위대한 지도자로 추앙받고 있는 호치민의 묘소로 아직까지 많은 참배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음

□ 문묘(Van Mieu)



- 11세기에 세워진 베트남 최초의 대학. 특히 그 안에 있는 규문각은 19세기 원조(元朝)시대에 만든 82개의 비석이 세워짐. 15-18세기 300년 동안 2년에 한 번씩 행한 과거시험의 합격자 명단을 새긴 82개의 진사제명비가 서있음
- 공자 위패를 모시기 위해 1070년에 세워진 이래 1076년부터는 최초의 대학으로서 유교학자를 양성했음. 문묘는 전통 베트남식 건물로 원형 그대로 보존이 되었으며 타원형의 기와로 만든 지붕이 아주 멋있고 벽이 없이 탁 트인 건물과 넓은 경내는 거리의 북적거림과는 거리가 먼 아주 조용한 명소임

□ 역사 박물관(History Museum)



- 선사시대부터 1945년까지의 베트남 역사 유물 소장
- 소재지 : 1, Pham Ngu Lao
- 1945년 이후 유물은 혁명박물관이 별도 소장

□ 전쟁(육군) 박물관(Army Museum)



- 베트남의 전쟁 역사를 보존하는 박물관으로서, 디엔비엔푸 전투, 월남전쟁, 사이공 함락 등 수많은 전쟁 관련 사진 및 자료가 전시되어 있음
- 박물관 뒤편에는 소련·중국에서 제공했던 무기가 설치되어 있음

- 소재지 : Dien Bien Phu 거리

- 동 박물관 우측에는 베트남 국기대(Flag Tower)인 육각형의 대형탑이 있음

□ 베트남 민족학 박물관 (Vietnam Museum of Ethnology)



- 베트남은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비엣족 외에 크메르족, 타이족, 호몽족 등 53개의 소수민족으로 이루어진 다민족 국가임. 베트남 민족학 박물관은 베트남에 공존하고 있는 소수 민족의 독특한 문화적 색채를 엿볼 수 있는 대표적 공간

- 1995년 10월 24일자 총리령에 의해 건립이 추진되어 1997년 10월 24일 정식 개관한 베트남 민족학 박물관은 베트남 사회과학원 소속의 국립 박물관으로, 베트남 및 동남아 지역 소수민족의 유물과 자료를 수집, 연구, 보관, 복제하고 이를 자국민 및 외국인에게 소개하고, 교육함으로써 세계의 민족 문화유산 보존에 기여하는 데 운영 목적을 두고 있음

- 소재지 : Nguyen Van Huyen 거리

□ 하롱베이(Halong Bay)



- 하노이에서 4시간, 140km 떨어진 남동쪽 광닌(光林)성의 해안 절경지대 하롱만(Ha Long Bay)은 3천개가 넘는 아름다운 섬으로 이루어졌음
- 하롱은 '하룽(下龍)'이란 뜻으로, 옛날 외적의 침략을 용이 내려와 쫓아낸 흔적이라는 전설에서 유래

- 1950년 프랑스 아세트출판사는 자연이 만들어낸 조각품인 이 섬들을 세계 8대 불가사의로 꼽았다. 90년대 중반 유네스코는 하롱만을 세계의 자연유산으로 지정함

□ 땀꼭(Tam Coc)



- 하노이 남쪽 약 115km 거리에 있는 땀꼭은 '숲 속의 하롱베이'라 불림. 하롱베이의 모습을 축소한 것 같은 땀꼭은 수많은 기암괴석이 볼거리를 제공함
- 땀꼭은 '세개의 동굴'이라는 뜻으로, 실제 이곳에는 '항카', '항하이', '항바라'라는 동굴이 있음

- 동굴투어는 항구에서 나룻배로 이용. 오동강의 물줄기를 따라 물고기를 잡으며 사는 베트남 사람의 삶을 엿볼 수 있음

□ 장안(Trang an)



- 2010년 봄에 베트남 정부에서 닌빈 지역에 새롭게 개발한 땀꼭과 비슷한 습지 수로관광 코스
- 땀꼭은 수로를 타고 3개의 동굴 탐방이 주류를 이루지만, 장안은 48개의 동굴이 발견되어 그중에 11개의 수로동굴을 관광객에게 개방

- 배를 타고 11개의 수로동굴을 지나는 풍경이 일품



<참고3> 간단한 베트남어

안녕하세요. Xin chào. (썸 짜오)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Rất vui được gặp ((남) anh/(여) chị)
(젓 부이 드억 갑 (아인/찌))

상담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Xin cảm ơn ngài đã cho gặp.
(썸 감 언 응아이 다아 쯔 갑)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Rất có ích đối với tôi.
(젓 꼬 익 도이 버이 또이)

또 뵙겠습니다. Chúng ta sẽ gặp lại nhau. (쭙 따 썸에 갑 라이 나우)

감사합니다. Xin cảm ơn. (썸 감 언)

얼마입니까? bao nhiêu tien?(바우니우 땡?)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 Anh/Chị Ten gì a ?(아잉(남)/찌이(여) 땡 지 아?)

제 이름은 (홍길동)입니다. Tên tôi là (Hongkildong). (땡 또이 라(홍길동))

잘 모르겠습니다. Tôi không biết. (또이 크롬 비엣)

실례합니다. Xin lỗi. (썸 로이)

오늘 hom nay (홈 나이), 내일 ngày mai (응아이 마이), 어제 hom qua (홈 과)

www.kotra.or.kr